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불교의 핵심 메시지는 공(空)이라고 한다. 공은 '존재와 현상은 서로 의존해서 발생한다'는 인연생기(因緣生起)에 따라 출현한다. 연기법에 따르면 어떤 존재와 현상도 혼자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존재와 현상은 공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존재와 현상은 인연에 따라 만나고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져 별개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존재와 현상은 '인연에 따른 잠깐의 일시적 관계'가 된다.

불교의 공은 복잡계 이론의 메타 안정성과 유사해 보인다. '메타'는 준(準) 또는 임시적이라는데 '메타 안정성'은 존재와 현상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와 임계현상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향한 노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적(動的) 메카니즘이다. 메타 안정성은 세상을 '거시적 복잡성과 미시적 불확실성'으로 이해한다. 이 때 세상은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서 요동치는 연쇄적 다내믹스'다.

최근 대통령의 메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다. 6월 자유총연맹 8월 광복절 그리고 국회 의원 연찬회 연설 등이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된 뒤 이념형 인간으로 바

대통령은 불안하다!

뀌며 제왕적 대통령으로 최적화되어(스스로를 군주의 반열에 놓고) 거침이 없고 용감무쌍하다"며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한다.

나이가 "21세기 디지털 선진국이 졸지에 1970년대 개도국 시절로 회귀"하며 "실용보수의 종식이자 이념보수의 부활선언"이라고도 한다. 집권당의 연찬회는 "부장님의 솔자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윤아(尹我) 일체 수준까지 갔으니 차라리 '용산의 힘'으로 당명을 바꾸라는 소리까지 듣는다.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하다. 대통령 메시지도 분명하다. 첫째, 방향성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한다. "나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어서 "철학과 방향성 없는 실용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방향은 정체성 확립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하고 동시에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의 확립"도 중요하다.

셋째, 협치와 정치복원도 정체성이 공유된 후에 가능하다. 대통령은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힘을 합쳐 가지고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는 집단이다.

넷째, 도전과 위기는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을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반국가

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이다.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다.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다섯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며 '부실기업'을 인수했는데도 "여소야대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육만 한다"고 억울해 한다.

대통령의 인식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 보인다. '과거의 직업적 경험과 현재의 집권당 불신' 그리고 "자기세력 없는 대통령의 빈자리를 차지한 뉴라이트"의 정치적 타이밍 등이 함께 가져온 시대와의 부조화일까! 일관되고 분명하며 확고해 보이는 메시지는 불안함의 역설적 표현일 수 있다.

메타 안정성은 겉으로는 강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계기나 내·외부의 충격으로 혼란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한 상태를 동반한다. 우연한 사건으로 정치의 실패가 공동체의 붕괴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말이다.

메타 안정성의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반야심경에서 바라밀다행의 공을 통해 세상을 여여(如如)하게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누가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까!

종교칼럼

분노 사회의 희생양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증가 했지만 이러한 사회병리 현상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보다는 방조하고 조장해서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학교폭력으로 긴 시간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들이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초등학교 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개개인의 갈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과 회복의 대안들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식약한 사람들의 경우 화를 참기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화를 참거나 삭인다는 것은 심리적 방어기제인 억압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억압이란 방어기제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왜 그런가? 분노는 감정이라는 에너지인데 이것을 누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위에 뜬공을 물속으로 눌러 놓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깊이 누를수록 강하게 튀어 오른다는 것이다. 착한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다고 한다. 나는 원래 착한데 나를 화나게 하면 크게 폭발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 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의 한 방법인 듯 싶다.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 자녀에게서 나오는 엔젤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부모에게 화살이 돌아 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참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산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자신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긴 세월을 사는 경

우도 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마음에 억압한 감정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계속 돌린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마치 화산처럼 터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순한 사람들이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마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속에서 살아 가야만 했다. 그러한 심리를 잘 이용하여 로마의 총독과 유대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합세하여 민중을 선동하였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 하는데 성공한다. 마치 백성이 원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처럼 빌라도 총독은 손을 씻는 행위를 한다. 하지만 영원토록 그의 이름 받디오 빌라도는 기득교인들의 신앙고백 속에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이로 등장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고 사회적 문제들을 풀어 나가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방법들이 필요하다. 특정한 이들을 희생양 삼아 순간순간 모면해 보려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어렵게 할 것이다.

종교가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더 나은 미래로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면 여기저기에서 상체나고 찢겨진 이웃을 보듬어 주자. 더 나아가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지치고, 각자 도생의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분노하는 이들을 꼭 안아주자. 그러면 이 분노의 온도가 조금은 진정되리라 생각한다.

기고

순천만 국가정원을 걸으며



박영길  
순천 국유림관리소장

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축제로 마무리 돼가고 있다. 정원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면서 이제 산림청에서도 정원, 수목원, 도시숲 등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됐다. 또 조직과 예산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학창시절 영어 교과서에 등장한 외국의 유명한 정원인 뉴욕 센트럴 파크나 영국 버킹엄 궁전,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정원, 편안한 정원, 나아가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명소가 될 것이다.

송태갑 박사(광주전남연구원)는 저서 '거기에 정원이 있었네' (2021년)에서 "나비를 보러가려는 꽃을 심고 새소리가 듣고 싶거든 나무를 심을 것이며 사람이 그리우면 정원을 가꾸라"고 했다. 전남 지역에는 국가정원 뿐만 아니라 민간정원이 많이 있다. 개인이 가꾸는 소규모 정원이지만 한번 들러 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오솔길을 비추는 햇살처럼 그윽한 정원이다. 민간정원을 방문할 때는 정원을 조성하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민간정원 제1호로 지정된 고흥의 '속섬' 애도(艾島)를 방문해 보면 수려한 남도 섬을 잘 보존하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가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애도는 작은 섬이지만 볼거리는 풍부하다. 노을 풍경과 동백숲길, 암석정원 등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산 정상에 가꾸어 놓은 바다위 비밀정원이 있다. 세련되거나 정교하게 꾸며진 정원은 아니

지만 300여 가지의 꽃이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정원은 이 섬과 잘 어울리는 소박한 정원이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정원 가꾸는 일에 흠뻑 취해 있는 이 부부를 방송한 적이 있다. 부부는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띄약발이 내리쬐는 날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이 될 때까지 숲을 지키고 마와 과 정원을 가꾸고자 했다. 비가 내리지 않아 심어놓은 나무들이 시들해지고 있는데 비가 오니 서로 얼싸 안고 기뻐하는 부부의 모습을 봤다. 정원을 가꾸는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정원의 사전적 의미는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연이다. 정원은 영어로 Garden인데 'Gar'(울타리)과 'Eden'(기쁨)의 합성어로 본질적으로 에덴동산을 동경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정원 안에 들어서면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워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훌륭한 정원문화가 있었다. 민간주택은 마당이 정원을 대신했고 사대부들은 정자를 지어놓고 자연과 풍류를 즐겼다. 유럽은 정원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보편화 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 역시 정원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정원은 건물에 달린 부속품이나 사치품이 아니다. 어쩌면 정원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누구나 세상이, 도시가, 마을이, 가정이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기를 바랄 것이다. 정원은 우리 삶의 축소판이자 실험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원을 들여다 보고 이야기할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전히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다.

社說

철도노조 총파업 이용자 불편 최소화해야

전국 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어제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한시적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파업 첫날인 어제 광주 송정역과 서울, 부산, 대전 등지에서 지부별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수서행 고속철도(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사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수서~부산노선을 감축하며 증편한 KTX의 사·총착을 수서역에서 하면 된다. KTX와 SRT 연결 운행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운임차별을 해소하라"며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며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편차 심한 주택연금제도 보완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해 광주·전남지역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저렴한 광주·전남의 경우 매월 연금 수령액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등 주택연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총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누적 총 11만 5687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주택연금 총가입자는 2346명으로, 지난 한 해에만 314명이 가입해 한해 역대 최대 가입자를 기록했다. 전남은 현재까지 누적가입자가 1055명인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연금 신규가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위축으로 인한 집값하락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사망할 때

까지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져 집값 하락이전에 가입해야 월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문제는 지역가입자들의 월 연금 수령액이 전국 평균인 146만원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비하면 절반이나 3분의 1수준(32.8%)에 불과하다. 올 7월 기준 주택연금 지역별 평균 월 지급 금액은 서울이 202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154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106만4000원으로 서울의 52.49% 수준으로 절반이고, 전남은 66만5000원으로 서울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생활 보장의 유용한 대안이다. 금융당국과 지자체는 주택연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지역격차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인 노후대비 컨설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2월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위르겐 클린스만을 선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크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독일과 미국 대표팀 감독 시절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한국축구 발전에 대한 뚜렷한 지향점이 없고, 재택근무 논란과 전술 부재, 유럽파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국내 유망주 발굴과 육성 소홀 등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두 현실화 되고 있다. 클린스만은 6수 끝에 지난 13일 사우디를 상대

재택근무 감독

다. 문제는 평가전을 치르는 과정에 경기 내용이 크게 퇴행했다는 데 있다. 그 원인은 '재택근무'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가 감독 부임 이후 6개월이 넘는 동안 한국에 머문 시간은 불과 67일. 취임 때 '국내에 상주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시간을 미국과 유럽에서 지냈다. 전술 부재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지난 웨일스와의 경기에서는 '롤링 브레이크' 시간이 1분 가량 주어졌는데,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한 표정으로 서있는 모습이 TV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또 리그를 통한 국내 선수 발굴에는 '내 일이 아니다'며 관심조차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당한 것은 참담한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도 아들을 위해 상대팀 선수의 유니폼을 요청하고, 레전드 매치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상식 밖 행보를 하고 있다. 클린스만은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 월드컵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한국은 196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우승컵을 들어 올린 적이 없다. 그만큼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더구나 일본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기량을 과시하며 독

일과 튀르키예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 등 승승장구 하고 있다.

클린스만은 경질론이 확산하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된다. 나는 잃을 게 없다'고 무책임한 말을 하더니 거센 비난 여론에 결국 해외 체류 일정을 바꿔 귀국했다. 그러나 재택근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팬심은 이미 싸늘하다.

/유재관 편집담당1국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